



인천 남동구 안일 행정의 내 지역도 못 지킨 참사 파장 논란

- ▶ 연수구 신항 승소 이어 11-2공구 야금 판정승?
- ▶ 남동구 관할권 공방은 과거 패소만 기억된 무능
- ▶ 바다 매립한 송도 관할권 분쟁과 승기천도 부상

인천 앞바다를 매워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연됐는데 언론 보도에 남동구가 설명자료로 대응했지만 늘 뒷북행정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그 무능함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분쟁이라고 비난 일색이다.

주민들은 박종호 호의 행정 무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과거부터 늘 연수구에 치이는 행정을 해와 이런 자치단체 집단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다는 것이 주민 사이에서 자괴감이 큰 답답함이다. 연수구와 분쟁에서 신항 패소 및 이번도 11-2공구 대처 무능을 꼬집고 있다.

남동구의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단체장의 무능이 대응에서 밀린 평가로 분석되고 있다. 남동구는 매립 당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금 매립이 된 토지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버스는 이미 떠났다는 것이다. 스스로 관할권을 내준 결과를 초래한 사실은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 남동주민들은 매립의 권리를 아는지 남동구를 향해 분노했다. 관할권은 해수면부터 지켜야 했다는 것, 이는 벌써 조건부로 관할권을 넘겨주겠다는 행정이란 것이다. 이미 연수구 관할권으로 인정하는 행동은 관할권 다툼에서 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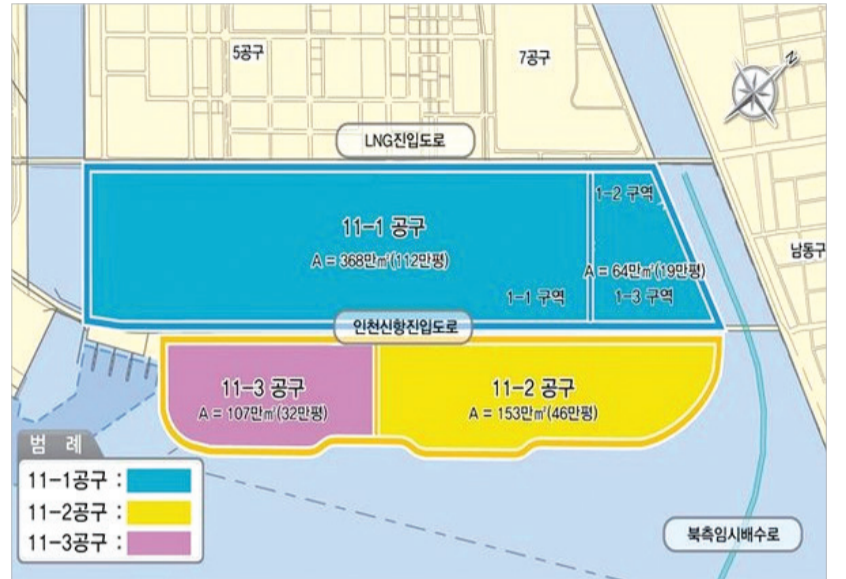
연수구는 이런 조건을 언제든 지 들어주면 11-2공구 관할권을 가지고 가게 생겼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처럼 협상 자체가 연수구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다. 광물권이란 개인에게도 인정이 되는 것이 법이 정하는 권리로서 하물며 공적 기관에서 매립을 했다.

남동구는 사실과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매립부터 개입하지 못해 광물권은 주장할 수도 없고 토지의 주인은 매립 당사자가 됐다. 여기에 같은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넘겨 달라고 하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과거 신항 패소로

이번은 연수구가 됐다. 이번 11-2공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매립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매립 당시 먼 산만 바라본 결과는 참사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남동구가 관할권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매립 당시 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남동구의 행정을 두고 그래서 뒷북행정만 일삼았다고 한다.

지난 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매립이 완료된 송도 11-2공구(153만㎡)의 귀속 지자체를 연수구로 정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연합발 타전은 남동구민들을 분노와 한숨을 쉬게 만든 참사라고 규정되고 있다.

남동구는 11-2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넘기는 데 동의하되 연수구 소속 송도 10공구에 건설될 예정인 광역소각장의 반입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소리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박종호 호를 향해 한심한 행정



송도 11공구 매립지 위치도 [사진 제공=인천시]

을 질타하는 소리는 일파만파다. 한편 자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남동구가 인접 연수구 광역소각장에서 쓰레기 처리 대가로 내야 할 반입료는 연간 72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지금 관할권을 두고 과거부터 계속 분쟁에서 밀리는 안일한 행정이 결과로 나타난 것도 단체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승기천도 오랜 관리 차원에서 연수구가 야금 침범해 관리권을 전부 넘겨 달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인천시가 분쟁에 개입도 무용지물이 됐다. 승기천 이용은 연

수구민들이 장악했다는 느낌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남촌산단도 연수구의 샌드백이 되어 공격을 당했다. 남동구 주민들은 엉터리 행정을 일삼고 방관한 책임은 현 박종호 남동구청장이 져야 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설명자료는 주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의 변명과 같아 현재 남동구 실태가 너무 한심하다는 중론은 계속 파장의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유동규 저격수 등장, 이재명 잡는다... '대장동 2라운드 진실 게임'

계양전통시장 방문해 멸치·콩나물 들고 '멸공' 호소
자유통일당 총선 선거, 이재명 대표 폭로전 가나 촉각

유동규 예비후보가 자유통일당 간판을 달고 계양을 총선에 합류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멸치·콩나물 '멸공' 포퍼먼스로 첫 공격에 나서 성남의 뜰 동지가 이제는 적대적 루비콘강을 건너 이번 총선에서 어떤 말을 더 쏟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자유통일당 유동규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인천 계양 전통시장을 찾아 '멸공'을 상징하는 '멸치와 콩나물'을 구매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국가적 친북행태를 간접적으로 꼬집고 비판하면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해 파장은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유동규 예비후보 3자 토론 성사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목사 등 합류해 강력한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유동규를 이재명의 상대 대표주자로 선택한 것은 전략적 신의 한 수라는 말도 있다. 계양을 첫 발걸음치고는 일타 3피를 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동규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에서 자신은 실무에 강한 인물이라고 유권자들에게 강조했다. 당시 장보기 행사는 멸치를 멸공이라고 해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성공적인 행보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 보수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자유 보수표 흡수가 예민하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만난 지지자들에게 "지금 계양은 광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지난 20년간 민주당은 계양 발전을 위해 일한 것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계양구를 살려내 서울의 관문이자 인천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출

마 기자회견 당시 계양테크노벨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장동과 박촌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계획을 제안했다. 서울과 인천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제시한 바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계양 출마라 이재명 폭로전 관심이 크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1~2일 계양구을(선거구 확정 전 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5.2%·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41.6%를 기록했다.

자유통일당 유동규 후보는 2%를 기록해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 가능성은 상승곡선을 그려 점점 높아질 것이라 분석되고 있어 묘한 전운의 강도는 후



자유통일당 유동규 예비후보가 '멸공'을 상징하는 '멸치와 콩나물'을 들고 보이고 있다. [사진 =자유통일당]

보자들이 어떤 답변을 낼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정치권은 유동규 예비후보가 계양을에서 여론조사 5% 지지율을 넘겨 3자 토론 성사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5%를 넘으면 원희룡·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는 3자 토론회가 성사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스톱리가 부상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

이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입당식에서 토론에 나가면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이는 대장동과 관련된 스토리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 같은 선거 국면에 흥미가 커지고 있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